

교수·학습 지원 환경 변인이 중학교 수업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 탐색¹⁾

배 은 주
(한양대학교 강사)

《 요 약 》

이 연구는 중학교의 수업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변인들 중 교수·학습 지원 환경 변인에 해당하는 변인들이 수업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탐색한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 중학교 2학년의 수업을 관찰하고 수업한 교사들과 학급 담임, 교장, 교감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수업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교수·학습 지원 환경 변인으로는 소규모로 분산·배치된 '교원연구실', '편안하고 연구하는' 학교 분위기, 행정가의 학교 운영 방향, 학부모의 학교 참여,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업무 중심의 교원승진체계, 수업지원 교사의 활용, 영어교과실 운영, 과도한 교사의 업무, 통합학교 제도 등이 발견되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학교 운영 방향이 행정가 개인에 의해 좌우되고, 과도한 행정업무가 수업연구 시간을 줄이고, 교직을 '안주하는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고, 승진을 위해 수업을 소홀히 하게 되고, '효과'보다 '효율'을 우선시 하는 통합학교 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주체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학교 운영과 학교 업무의 분담과 축소, 교사들의 공동연구와 지원 체계의 활성화, 이 성과와 연계되는 새로운 승진체계의 도입, 교육재정의 확보와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교수·학습 지원 환경 변인, 교육주체, 공동연구, 학교 참여, 승진체계

1) 이 글의 초고는 2005년 10월 8일 '중학교 교실수업 관련 요인 탐색 세미나(고려대학교 백주년 기념관)'에서 발표되었다. 이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연구보고 '교수·학습 상황과 주요 변인 분석 연구 - 중학교 2학년 교실 수업을 중심으로 - (최승현 외, 2005)'의 한 부분을 구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수정·보완한 것이 지금의 모습이다.

I . 들어가며

21세기를 가리켜 흔히 지식기반사회라고 부른다. 지식기반사회란 여러 가지 단편적 정보들이 그 자체가 자원으로 활용되고 상품적 가치를 지니기도 한다는 의미의 수준에서만 아니라, 조직되고 다듬어진 지식을 생산하고 사용하고 교환하고 확산하고 재구성할 때 거기서 창출되는 생산적 힘과 사회적 가치에 우리의 삶이 크게 의존하게 되는 그러한 사회를 말한다(이돈희 외, 1999).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새로운 사회에 걸맞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을 길러내는 것을 교육의 핵심과제로 설정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기존 학교교육을 개혁해야 할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실 수업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교실 수업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실 수업에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아야 한다. 즉, 교실 수업을 어떻게 개선하고 교사들에게 어떤 도움이 현실적으로 필요한가를 알기 위해서는 교실 수업의 복잡성과 역동성을 고려하여 그 실재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교실 수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무엇이고, 그 변인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으며 그로부터 나타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자세히 탐구해 보아야 한다. 이것은 결국 실제 교실 수업 상황을 들여다보아야만 알 수 있다.

교실 수업에 관한 연구는 주로 교수·학습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²⁾ 교수·학습 상황에는 학습자 특성, 교사 특성, 교수법, 교실 환경, 수업 매체, 과제 특성, 학교 환경 등 수많은 변인들이 개입하고 있음을 이미 여러 연구들(전성연, 2001; 이성호, 1999; Merrill, 1994; Frazee & Rudnitski, 1995)이 밝혀놓았다. 또한, 수업과 관련된 각종 외적 환경도 수업의 효과에 간접적이지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Dills & Romiszowski, 1997). 이러한 변인들은 독립된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교수·학습 활동의 면밀한 분석은 수업의 내·외적 변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총체적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 하지만, 위의 연구들이 대부분 양적 연구 방법으로 이루어진 반면, 최근에 실시된 최승현 외(2005)의 연구는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병행하여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교수·학습 상황에 작용하는 주요 변인을 선행연구(전성연, 2001; 이성호, 1999; Merrill, 1994; Frazee & Rudnitski, 1995)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새롭게 네 가지로 유목화 하고, 질적 연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교수·학습 상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 흔히, 교수·학습은 가르치고 배우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지만, 교육적으로 그 관계를 규명하기란 그리 간단치가 않다. 여기서는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교수에 수업이 포함되며 그 수업 속에서 학습이 일어나는 것으로 간주한 입장(교육학대백과사전, 1988; 전성연, 2001; 조영달, 2001)을 취하였다. 이렇게 보면, 교수의 개념에 수업이 포함될 수 있으며 수업은 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표 1〉 최승현 외(2005)에서 제시된 교수·학습 상황에 작용하는 주요 변인

주요 변인	변인 내용
교수·학습 실행 변인	교수법 및 교실수업환경과 관련된 것
교수·학습 기본 변인	학생, 교사, 교육과정과 관련된 것
교수·학습 지원 환경 변인	학교, 학부모 및 지역사회, 교육행정기관 등과 관련된 것
사회 환경 변인	정치, 경제, 문화, 생태 등과 관련된 것

이와 같은 여러 변인들 중에서 기존의 연구들(김주훈 외, 2002; 김왕근, 2003; 김아영 외, 2004; 김양분 외, 2004; Frazee & Rudnitski, 1995; Alao & Guthrie, 1998; Lefrancois, 2000)은 교사와 학생, 그리고 교육과정과 관련된 변인들에 주로 주목하고 있다. 교사가 어떻게 하느냐, 학생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어떠한가, 그리고 교육과정의 특성이 어떠한가에 따라 수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사나 학생과 관련된 변인들은 개인적 특성에 따라 그 영향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교육과정의 문제도 교사들에게 부여된 자율성에 따라 일정 정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교사와 학생의 개인적 차원의 특성이 수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적 차원의 특성을 변화시켜 좋은 수업을 기대한다는 것은 개별적 처치를 해야 하므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에 비해 교수·학습 지원 환경 변인은 교사나 학생의 개인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교육정책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정책적 지원과 여건의 조성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수·학습 지원 환경 변인의 영향이 드러내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은 좋은 수업을 위해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교사나 학생, 교육과정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지만, 교수·학습 상황을 지원해 주는 환경 변인에 대한 연구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교실 수업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인들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교수·학습 지원 환경 변인에 초점을 맞춘다. 교수·학습 실행 변인과 교수·학습 기본 변인이 미치는 영향은 교사와 학생의 개인적 특성에 많이 좌우되므로 수업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일관성 있게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사회환경 변인은 한두 가지 교육 정책으로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변인이 아니므로 보다 더 장기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좋은 수업을 도모하기 위해 더욱 중요한 것은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교수·학습 상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 즉, 환경의 조성에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중학교의 교수·학습 상황에서 교실 수업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최승현 외(2005)에서 제시된 네 가지 변인들 중에서 교수·학습 지원 환경 변인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교수·학습 지원 환경 변인은 다른 변인들과 달리, 학교 체제적인 환경과 정책적인 지원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따라서 교사나 학생 개인의 차원보다는 보다 체제적인 차원을 조망할

수 있다. 여기서는 교수·학습 지원 환경 변인 중에서 세부적으로 어떤 하위 변인들이 수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거기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과 연구대상

교수·학습 지원 환경 변인이 수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제 이루어지는 교실 수업을 직접 관찰해 보아야 한다. 학교마다 가지고 있는 교육 여건이 다르고, 다양한 맥락에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전의 교수·학습 변인에 관한 연구들은 실증적 연구에 그친 경향이 있어 교수·학습의 실체를 드러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수·학습 지원 환경 변인이 수업에서 실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해 수업에 대한 참여관찰과 교사들과의 면담을 주 연구 방법으로 한 사례연구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전국 16개 교육청을 7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 관할 교육청(경기도교육청, 광주교육청, 부산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 중학교들 중에서 임의 추출된 7개교에서 2005년 4월에서 6월에 이루어졌다. 수업관찰이 이루어진 학교들은 각 시·도 교육청 관할 학교들 중에서 임의 추출되었으며,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허락을 받았다. 수업관찰은 2학년 중 특정 반을 연구자가 임의 지정하여 모든 학교에서 관찰하였고, 이것을 허락한 교사들은 해당 학교의 2학년 수업을 담당하는 일반 교사들이었다. 수업관찰은 중학교의 10개 교과(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영어)를 대상으로 하였다. 수업관찰이 이루어진 연구대상 학교는 다음과 같다.

〈표 2〉 연구대상 학교 현황

지역 및 학교	학급 수	지역 구분	관찰 시기
광주 A	41학급	대도시	2005년 4월 초~6월 말
경기도 B	21학급	중소도시(대도시 주변 위성도시)	
경상북도 C	6학급	읍면지역	
강원도 D	27학급	읍면지역	
부산 E	20학급	대도시	
충청남도 F	9학급	중소도시	
제주도 G	18학급	읍면지역	

대도시와 여타 지역의 교육 여건이 달라, 교수·학습 지원 환경 변인이 수업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을 예상해서 보다 포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대도시와 중소도시, 읍면지역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그리고 수업관찰은 중학교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2학년 수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중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아직 많은 학생들이 초등학교 측면을 가지고 있어 수업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우며, 중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 일부 지역의 고등학교 입시 때문에 수업에서 차별되는 부분이 발견될 것이라고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수업관찰을 허용한 교사들에게는 보여주기 위한 수업이 아닌 일상적인 수업을 보여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교사들이 가지는 어느 정도의 부담감은 감안해야 한다.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이나 주변 환경이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최고의 수업태도를 가지고 있는 곳임을 감안하고 보라.”는 A중학교 교장의 조언이나, “도시의 외곽에 위치해 있어 학력 수준이 낮은 편이고, 교사들도 초임교사가 많고 아이들도 산만하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아이들도 있다는 걸 보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수업관찰을 허락했다.”는 B중학교 교장의 조언을 고려해 보면, 수업관찰 연구가 일상적 수업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학교에서의 수업관찰은 1교시부터 6교시까지의 하루 수업을 모두 관찰하였고, 수업 관찰 후 수업한 교사들과의 집단 면담, 그리고 교장, 교감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에서는 수업 운영 실태 및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관찰한 수업은 모두 녹화되었고, 면담도 모두 녹취되었다. 그리고 보조적으로 쉬는 시간에 학생들과도 개방적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에서는 교수·학습 지원 환경 변인과 관련된 것만 얘기하지 않고 전반적인 수업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등에 관해 폭 넓게 얘기하였다. 이 글에서는 수업관찰과 면담 자료 이외에도, 연구를 시작하기 이전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루어진 현장 교사들과의 협의회 자료를 보완적으로 사용하였다. 현지 연구가 이루어지기 전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파견교사들을 대상으로 좋은 수업을 위한 의견을 토론하는 협의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자료는 교사들의 관점과 처지를 잘 알 수 있게 해 준 자료였다.

수집된 모든 자료는 Spradley(1980)가 제안한 유목분석과 분류분석을 먼저 거쳤다. 이를 통해 세부적인 하위 변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더 큰 항목으로 유목화 하여 교수·학습 지원 환경 변인에 속하는 것들만을 추출하여 세 가지 하위 변인으로 범주화 하였다. 수집된 자료에는 교사나 학생, 교육과정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꽤 많았지만, 분석을 하면서 교수·학습 지원 환경 변인과 관련되는 것만을 추출해 내었다. 이러한 분석과정을 세 차례 거친 후, 이를 토대로 교수·학습 지원 환경 변인이 수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3) 이것은 연구의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더구나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사례연구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학교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느냐이다.

Ⅲ. 교수·학습 지원 환경 변인이 수업에 미치는 영향

수업관찰과 면담의 결과 실제로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환경에 속하는 변인들을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학교의 환경, 학교 운영 방향, 학교 분위기 등이 수업에 미치는 영향을 학교 변인으로, 학부모 참여와 지역사회 연계가 수업에 미치는 영향을 학부모 및 지역사회 변인으로, 교수·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교육정책 및 그 실체가 미치는 영향을 교육행정 변인으로 분류하였다. 교수·학습 지원 환경 변인은 수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교사나 학생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⁴⁾ 여기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그 각각의 변인들이 수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학교 변인

가. 교사의 수업 연구를 촉진하는 소규모의 ‘교원연구실’

수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교실의 환경이지만, 학교의 물리적 환경도 간접적으로 수업에 관여한다. 이것은 교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대개의 학교들은 교사들이 근무하는 공간을 중심부의 제1교무실과 여타의 부서별 별실로 구성하고 있다. 교무실에는 교감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교사가 함께 근무하고 있고, 그 외 예체능부와 과학부, 생활지도부 등은 일반적으로 별실 공간을 사용한다. 그런데 이런 학교의 일반적 구조와 다르게 공간 배치를 한 광주 A학교는 공간의 배치가 교사들의 수업 연구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A학교에서는 교무실이 8~10명 정도의 교사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교원연구실’로 분산되어 있다. 소규모의 교원연구실로 분산되어 있는 공간 배치의 효과를 A중학교 교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구조적으로 연구실을 분리하다 보니까 뭔가 기본적인 사명의식이 뒤따르더군요. 저도 여기 오기 전에는 교무실이 한 군데 있어 가지고 교감 선생님이 한 가운데 있어서 어딘가 모르게 피곤한 감도 있고, 선생님들이 많이 모이면 학습에 조금 거리가 먼 얘기도 가끔은 해야 될 경우도 있고, 정신적으로 휘말리는 알파적인 요소가 작용하더군요. 저도 막 왔을 때 여기 적응이 안 되었어요. 우리 학교 연구실이 있는 게 이렇게 함으로써 음으로 양으로 보이지 않는 채찍이 있구나…… 학부형들이, 한 곳에 교무실이 있을 때 학부형과 한 교육적인 상담 내용과 여기서 상담한 차원이 내용이 달라지더군요. 어딘가 모르게 오픈 고정되어 있을 때는 하고 싶은 얘기도 부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그런 것이 작용이 되더라 이겁니다. 예산이 허용이 되면 좀 더 우리 학교 같이 이런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A중학교 과학교사)

4) 연구의 실체가 학생보다는 교사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면담이 교사에게 훨씬 더 비중을 두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은 교사의 시각을 많이 반영하고 있음을 미리 알려둔다. 차후 연구에서는 학생의 시각도 많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교무실 개념을 탈피한 새로운 교원연구실의 구조와 배치는 교사들에게 생각 외의 효과를 가져 온 것이다. 기존 교무실 구조에서, 분산·배치된 교원연구실은 교사들이 자연스럽게 공부하고 연구하여 수업을 잘할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있음을 교사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A중학교는 각 학년의 교실이 있는 층에 교원연구실이 분산되어 있고, 되도록 그 학년의 담임들이 그 층의 교원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공간의 분산과 교실과의 근접성에 따른 인력의 배치는 교사들에게 또한 ‘학생지도를 훨씬 수월하게’ 해 준다. 이와 같이 ‘학교의 물리적 환경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느냐’도 교사의 수업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나. 효과적 교수·학습을 위한 ‘편안하고 연구하는 분위기’

학교에서 형성되는 분위기는 쉽게 말하면 학교 구성원들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형성하고 있는 ‘학교 풍토’라고 할 수 있다. 학교의 풍토 중에서 수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교 전체의 분위기이다. 학교 분위기 형성에는 학교 구성원인 교장, 교감, 교사, 학생 모두가 관련되지만, 학교 행정가인 교장과 교감이 교사들에게 어떤 분위기를 조성해 주느냐가 교사의 수업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학교 행정가들이 교사들에게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면 교사들이 수업에 몰두하고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A중학교 교사들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일하는 자신들의 환경을 ‘편안한 근무환경’이라고 말한다. 이런 분위기의 조성에는 교감의 역할이 컸음을 지적해 주었다. 이러한 ‘편안한 분위기’는 개방적 풍토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고, 개방적 풍토는 폐쇄적 풍토에 비해 교수자의 욕구와 전문성이 높이 존중된다 (Hoy & Miskel, 2003).

이와 달리, 학교의 교사들이 자신의 직업 혹은 직무와 관련하여 형성하고 있는 독특한 분위기가 있는데, 이것을 교사들은 ‘교직 분위기’라고 부른다. 하지만, 사실 이 분위기는 교사 개인에 따라, 학교급에 따라 그리고 학교 관리자에 따라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교사들은 자신들이 형성하는 분위기가 일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자신들의 직업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교사들이 형성하고 있는 교직 분위기는 일반적인 ‘학교 분위기’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교사들이 형성하고 있는 교직분위기는 교수·학습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왜냐하면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업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학교 교사들은 교직의 분위기를 ‘안주하는 분위기’라고 말한다.

교사로서 전문인의 의식이 없는 거 같아요. 변호사만 전문인이 아니고 의사만 전문인이 아니고 교사도 전문인인데, 전문인이라면 끝없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의식이 없고, 안주하는 분위기가, 고등학교는 모르겠지만, 중학교는 그런 분위기가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설령 신입교사라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진정한 전문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드물다고 생각해요. (교사협의회, K교사)

교사들은 이런 분위기보다는 ‘연구하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수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남아서 하시는 분도 어떤 거냐면 정말 하고 나서 집에 갈 때 가벼운 발걸음이 아니라 머리 무겁고 어깨 무겁고 의무감 때문에 압박감 때문에. 즐거워서 연구하는 분위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고. 연구라는 게 혼자 하면 한계가 있잖아요? 서로에게 잘 돼야 나한테도 효과가 있는 거구. 그런 분위기가 그런 게 없으니까 혼자 애쓰다가 파급효과 없이 그리고 파급효과도 없으니까 본인 자체도 별 도움 없이……. (교사협의회, S교사)

다. 학교 행정가의 운영 방향에 따라 변화되는 학교교육

학교를 관리하고 이끌어가는 학교 행정의 방향이 어떠한가에 따라 학교의 수업도 달라진다. 학교 행정가인 교장과 교감의 학교 운영 방향과 교육관이 수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가령, 교장이 학생들의 학업성취 향상을 위해 내실 있는 수업을 권장하고 수업의 밀도를 중시한다고 하면, 교사들도 자신의 수업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B중학교의 경우 이전의 두 교장이 건강에 문제가 있어 학교에 열정을 쏟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에 학교가 다른 근처 학교에 비해 시설이나 학업성취도 면에서 더 떨어지게 되었다고 일부 교사들은 주장하였다. 그러나 전년도에 새로운 교감에 이어 교장도 바뀐에 따라 학교의 여러 면이 쇄신 중에 있다고 한다. 그 쇄신 중의 하나로 아침 자율학습 시간을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아침 자율학습 시간을 학생들에게만 맡기고 방치하던 데서 벗어나 담임이 입실하여 관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그리고 수업하는 교사들에게 내실 있는 수업을 하도록 권장하고, 방과 후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렇게 한두 달이 가면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조금씩 향상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한다.⁵⁾ 주변 여건이 좋지 않고 학생들 역시 학업 수준이 뒤떨어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학업성취도의 향상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조금씩 아침 자율학습의 틀이 잡혀가면서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의 수강생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이렇게 교장과 교감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가장 시급한 학교의 목표로 삼고 매진하게 되면, 그 영향이 수업하는 교사들에게도 미칠 수밖에 없다. 면담한 교사들도 학생들의 기본적 학업성취능력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사교육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학교교육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행정가는 학교 주변의 환경이 열악할수록 학

5) 학교장의 학교 운영방침이 제대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

생들이 갖고 있는 열등감과 자신감이 저하되어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이 갖고 있는 열등감과 저하된 자신감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고안하여 실시해 본다고 한다. 그중 한 방법으로 다양한 시상제를 마련하여 될 수 있으면 많은 학생들이 상을 받게 함으로써 자신감을 갖게 한 C중학교 교장은 이것이 학교의 목표이자 학교 행정가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학교에 부임해서 학생들의 자신감을 키워주는 것이 일차적인 일이고 ... 자기 존중감을 갖게 해주고 그래야 공부도 할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책 중에서 다양한 시상제를 중·고등학교 같이 합니다. 예를 들어, 학업우수상, 선행상 정도가 아니라 다양하게 하지요. 상의 종류는 ... (성적은 고려하지 말고) 아침 일찍 와서 청소를 잘하면 봉사상, 인사를 잘하면 예절상 추천해 주고, 근면상, 봉사상, 친절상, 옷을 잘 입으면 패션상. 그렇게 상을 다양하게 주고 도서상품권 오천 원짜리 하나씩 주고 ... 상장은 교장이 한 사람씩 다 줍니다. 상 받는 모습을 한 사람씩 사진 찍어 봉투에 넣어 “수상을 축하합니다.”(라고 인쇄된) 봉투에 넣어서 주지요. 교장이 다과도 제공해 줍니다. 그중에는 중학교까지 상을 처음 받은 학생도 많아요. 공부를 못하니까 ... 과거에는 공부를 못하면 다 제외되는데, 그런 애들이 상 받아서 교장이 악수하고 사진 찍어 주고 하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C중학교 교장)

또, C중학교 교장은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상담을 통한 생활지도를 권장한다고 한다. 인성교육은 ‘생각이 바뀌면 행동도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며, 이를 통해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이나 목표가 있지만, 현실과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 (중략) ... 애들 체벌하지 말아라, 체벌하지 말고 생활지도 하려면 대안이 뭐냐. 그럴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상담을 많이 해라. 상담을 해서 대화를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생들이 인정해줘야 된다. 어려운 것도 없어요. 되던데, 못 하더라고. (C중학교 교장)

시상제를 통한 인정과 상담을 통한 존중은 자아존중감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자아존중감의 향상은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아영 외, 2004; 김문희 외, 1999)에 비추어 보면, 자아존중감의 향상을 위해 학교 행정가가 노력하는 것은 교수·학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학교를 어떻게 관리하고 이끌어가고자 하는가?”라는 학교 행정가의 학교 운영 방향도 교사와 학생을 통해 수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2. 학부모 및 지역사회 변인

학교가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느냐는 그 지역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알려주는 요소 중 하나이다. 차종천 외(2004)에 따르면, 서울시 내에서도 계층별로 주거 지역이 다르며, 지역별로 소득과 학력에 큰 격차가 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은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교육 수준, 교육열과 교육관 등의 특성을 통해 학교교육에 영향을 미친다.

가.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에 따라 달라지는 학교수업

학부모들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학교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교육주체이다. 따라서 학부모의 학교 참여는 학교의 수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학부모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은 곧바로 학생의 특성으로 연결된다.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교육열, 사교육 의존행위 등은 바로 학생의 학업 수준과 학업에 대한 열의로 표출되기도 한다. 따라서 학부모의 학교 참여는 교수·학습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대도시에 위치한 A중학교의 학교장과의 면담 결과에 따르면, 이 지역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타 지역보다 높고 교육 수준 또한 높은 편이어서,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으며 사교육 의존도도 높다고 한다. 학교는 이러한 학부모의 수준과 요구에 맞추어 학교 교육을 진행시킬 수밖에 없다. 이 학교에는 영어 교과외의 경우 원어민 교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한국인 교사도 해외연수를 다녀온 사람으로서 수업을 영어로만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능력 있는 교사를 두지 않고서는, 이미 해외여행 경험이 많고 해외에서 살다 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많은 이 학교에서는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C중학교는 읍면지역에 위치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는 학교로서, 학부모나 지역사회의 요구는 매우 높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낸다고 한다.

이 학교는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고 또 학부모들도 오셔서 지원을 많이 하시려 하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주 좋습니다. 선생님들의 수업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밀어줍니다. 그러니 선생님들도 열심히 하시고 분위기도 좋습니다 ... (중략) ... 워낙 소규모이어서 초·중학교가 같이 있는데도 교사 간의 인간관계도 좋고, 일은 많더라도 특별히 부딪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장 선생님도 학교 경영하시기에 상당히 수월하시고, 그런 점들이 우리 학교의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중학교 교감)

C중학교처럼 교사 수가 적고 소규모인 경우에는 학습 환경이 열악할 것이라 짐작하였으나 모든 상황이 다 좋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한다. 전체 학교 구성원의 수가 적기 때문에

가족적이며, 인간관계 형성이 잘 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에 비해 B중학교의 경우,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모두 직업을 가졌거나, 편부나 편모로 구성되어있는 매우 열악한 여건에 처해 있는 가정들이 많은 편이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부모의 관심 밖에 있거나 거의 방치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학교에 대해 생각지도 않았던 요구를 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 저도 교사이기 전에 학부모인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규율을) 잡을 건 잡는 않지만, 선생님들 체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학부모나 누구고 지켜주는 상황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걸핏하면 학부모가 (학교나 교사에게) 항의하면 학생들에게 체면이 안 서지요. 어떤 때는 차라리 무관심 해버리면 더 나을 텐데……. 정말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될 때 나서서 선생님들을 통제하려고 할 때 좀 심란해요. 전에 학부모들을 학교에 모시고 행사를 진행하는데, ‘왜 이 행사를 이렇게 진행하느냐? 난 선생님 만나러 왔는데 왜 안 만나주느냐? 어디 갔느냐?’ 하면서 아무 것도 아닌 일에 흥분해서 막 항의할 때 좀 그래요. (B중학교 도덕교사)

그나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 측에 한 요구가 바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이었다. 이러한 학부모의 요구는 새로 부임한 교장과 교감에 의해 즉각 학교 운영에 반영되었다. 그리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 실시한 것이 아침 자율학습 관리와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의 실시였다. 이런 분위기에서 교사들 역시 수업에 충실하게 되고 학생들과 함께 무엇이든 해보려고 노력하게 된다.

나. 지역사회 자원을 교육공간으로 활용

지역사회가 읍, 면 단위의 농촌지역일 경우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학교교육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이기연(1992)의 연구에 따르면, 농촌지역 학교의 경우 농번기를 맞이하면 학교에서 일손이 부족한 지역사회의 사정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지역의 보리베기 일을 돕기 위해 ‘보리베기 동원’을 나간다. 이를 위해 학교수업을 일주일 정도 쉰다. 이 외에도, 농촌지역에서는 학교가 그 지역의 구심점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대도시에서 학교의 수업에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만큼 대都市는 분화되고 다원화되어 있어 지역사회와 학교의 연계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 학교의 시설을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개방한다든지, 학교에서 시행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지역사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다양한 시설을 교육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

A중학교의 경우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수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례를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은 학교수업을 위해 지역의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다. A중학교는 체육수업을 할

때 주변에 위치해 있는 시민공원을 이용한다. 학교의 운동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100m 달리기나 이어달리기와 같은 육상 경기를 하기 어렵다. 그래서 시청의 협조를 얻어 주변에 있는 시민공원을 이용하여 체육수업을 진행한다. 시민공원은 새로 조성되어 가운데 잔디가 있고, 가장자리에 트랙을 만들어 두었다. 그래서 이어달리기를 하거나 기록경기를 하는 데 유리하다. 평상시에는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지만, 학생들의 수업이 진행되는 시간대에는 이용객이 적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을 진행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다. 이런 방식의 이용은 시민공원의 활용도도 높여줄 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학생들의 수업을 볼 수 있는 ‘수업 공개의 장’도 될 수 있다.

3. 교육정책 변인

우리나라의 교육정책 중에서 교사의 수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여러 정책과 유인체계는 교사가 수업에 임하는 자세와 수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는 수업 지원과 관련되는 정책적, 제도적 측면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수업 지원 교사제도의 효과와 한계

1) 과학과의 실험보조교사제도

과학교과 수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험이 우선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이를 항상 실시하지 못하는 것은 교사가 가르치는 모든 반의 실험을 혼자서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실험을 필요로 하는 과학수업을 위하여 실험준비를 위한 실험보조교사를 따로 둔다면, 교사는 수업을 실험으로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였다.

영 못하는 조가 있거든요. 제가 그 조 가서 하면 또, 다른 조도 도움이 필요해서 제가 보조 선생님께 부탁을 해요. ‘선생님 저 조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가서 좀 봐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선생님이 도와주시면 애들이 안 되다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되더라’ 하고, …(중략)… 못 따라 오다가 자기들 봐 주니까, 현미경 실험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번거로운 면이 있겠죠. …(중략)… 준비단계에서 예비실험을 저는 항상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가, 실험 뒤처리 등……. 지금은 실험보조선생님이 계시니까 과학실 두 개가 계속 실험이 돌아가는 거죠. 지금 제가 하자마자 또 다른 선생님이 수업하시고요. (E중학교 생물교사)

교사들은 실험보조교사의 도움이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이들의 역할이 실험 준비까지인지 수업활동 보조도 할 수 있는지 그 역할을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다. 또 다른 한계로, 실험보조교사의 불안정한 신분 보장을 들 수 있다. 실험보조

교사는 많은 시간을 일하지만 정규직이 아니어서 자주 바뀌는 편이라고 한다. 하는 일에 비해 보수가 적기 때문에 이들은 항상 안정적 직업을 가지고자 다른 무엇을 준비한다고 한다. 그래서 E중학교 생물교사는 ‘공부 따로, 일 따로’인 실험보조교사제도가 연속성과 안정성이 떨어져 수업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실험보조교사를 활용하여 수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2) 영어과의 ‘원어민교사제도’

과학 과목에서 실험보조교사가 필요한 반면, 영어 과목에는 원어민교사가 필요하다고 한다. 두세 학교끼리 묶어서라도 한 사람의 원어민교사를 배치해 준다면 영어 회화나 영어수업, 말하기 평가 등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여러 학교 영어 교사들의 전반적인 의견이었다.

원어민 영어강사가 많지 않아도, 다른 두세 학교끼리 묶어서라도 한 분 있으면 회화는 어떻게 좀 ... 전에 그 원어민교사가 있는 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함께 근무를 해 봤는데요. 그 이제 우리가 한 과목 분석을 해 보면, 좀 그 커뮤니케이션 파트가 있고, 리딩 파트라고 해 가지고 문법의 성립에 필요한 파트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 선생님한테, 이 부분은 선생님이 해 달라 ... 또 수행평가에서, 말하기 시험에서 나누어 이걸 내가, 이 부분은 원어민이 하겠다고 하면 훨씬 좋은 방법으로 말하기 평가를 할 수 있어요. ... 지금은 실제 무늬만 말하기 평가예요. 몇 개를 쥐 가지고 요거 뽑아가지고 평가하는데, 원어민과 함께 하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얘기하는 것도 할 수가 있겠고..... (C중학교 영어교사)

대부분의 영어과 교사들이 원어민교사제도를 선호하는 이유는 행정기관이 제대로 된 연수 시스템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해외 연수의 경우 어학실력의 향상보다는 해외 학교 시찰과 외국 문물을 접해 보는 효과가 있을 뿐, 원어민과 함께 생활하며 즉각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보다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영어과 담당 교사들이 교원연수의 효과보다 더 크게 어학실력 향상에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공통으로 지정한 것이 ‘원어민교사제도’이다. 원어민교사와 장기간 함께 생활하면서 문고 배우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래 이럴 때 어떻게 표현하면 좋으냐?” 물으면 대답해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책에 보면 수수께끼(riddle) 같은 거 나오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답을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하니까요. (E중학교 영어교사)

원어민교사와 함께 근무하면서 자신의 교과에 대한 필요한 도움을 받아 본 다른 학교 교사들도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한 연수제도보다는 차라리 ‘원어민교사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수업 진행에도 더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나. 다양한 기자재로 수업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영어교과실 운영

교육청에서는 교수·학습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기자재를 갖추고 있는 교과실을 각 학교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여러 가지 기자재와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갖추어져 있어 교과실의 사용은 수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고 있다.

영어교실을 사용해 보니, 다른 영어 선생님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만큼 편하더라고요. 기자재가 많이 있고, 빔 프로젝터, 물론 교실마다 컴퓨터가 있지만, 소프트웨어 준비해야 하고 장착해야 하는 시간이 걸려서 능률이 떨어지는데, 준비된 상태에서 애들을 맞이하니깐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빌릴 필요도 없고 기자재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일단 영어교실은 판서를 안 해요.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판서내용을 쓰면, 한 번 해 놓으면 다섯 반을 쓸 수 있잖아요? 칠판 사용해서 판서하면 가루 마시면서 육체적으로 힘들고, 힘들게 달한 부분에 대해서 애들한테 더 신경을 써 줄 수 있잖아요? 매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애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 이런 면에서 영어교실을 활용한다는 것만으로도 저한테 힘이 많이 줄어들면서 적은 노력으로도 뭔가 많은 변화를 줄 수 있고 새로운 방법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다른 과는 모르겠는데, 영어과 같은 경우는 영어교실을 이용하는 게 선생님 부담이 줄어들면서 적은 노력으로도 학생들에게 효과적이고 많은……. (교사협의회, H교사)

이와 같이 교육청의 교수·학습 지원 정책이 수업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학교에서 그런 효과를 경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교육청의 행정이 ‘강요’가 되면, 교사들은 부담을 느껴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영어교실’은 다른 과 특별교실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영어교실’하면 ‘잉글리쉬 온리 존(English Only Zone)’이라는 닉네임이 항상 붙어 다녀서 영어 선생님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세요. 영어만 써야 하지 않나, 교육청에서 ‘잉글리쉬 온리 존’을 만들라고 강요를 했거든요. 그게 바로 영어과 교실이 됐어요. 다른 과는 안 그런데, 영어과 선생님은 사용 안 하려고 하세요. 저는 그냥 영어만 안 써도 그냥 이용할 거야, 써서 좋은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데, 영어과 교실을 ‘잉글리쉬 온리 존’으로 영어 선생님들이 인식을 해서 그것이 있으면서도, 기자재나 좋은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부담감 때문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뜻 말을 못하시는 거 같아요. (교사협의회, J교사)

결국 교수·학습 지원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교사에게 어떻게 설득력을 갖추는가에 따라 교육행정 변인이 교수·학습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난다.

다. 수업의 질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교사의 업무

한편, 교사들은 수업 외에 처리해야 할 불필요한 업무들이 많아, 학생들에게 100% 신경을 다 쓰지 못한다고 토로하였다. 정해진 수업 시간과 담임 업무 외에 각자 맡고 있는 부서일

(교무부, 연구부 등)이 있는데, 이외에도 교육청이나 다른 기관에서 오는 협조 공문 등을 처리하는 업무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문건들을 처리하다보면 수업 준비 시간이 모자라게 되며, 결국에는 수업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고 한다.

공문처리나 이런 거 처리하다 수업 시간에 늦게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애들한테 미안하죠. ... 공문은 또 즉각 보내줘야 하니까. 또 전화 오고 하니까. 저희는 주로 전화 받느라고 일을 못 해요. 뭐는 왜 안 해 주냐, 안 보내 주냐, 뭐 별 이상한 것도 요구하니까. (B중학교 학년부장 교사)

뭐 업무처리하다 보면 애매한 것 많습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부터 몇 년까지 찾아서 통계내서 제출해 달라' 그렇다고 안 해 줄 순 없거든요. 그걸 2, 3년 전 것 찾으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형식적인 통계가 되고, 일단 단체에서 내려오는 공문들도 너무 많습니다. ... 이런 것들 보다 보면 스트레스 받아요. (G중학교 가정교사)

모든 업무의 전산화로 학교의 업무처리도 더 신속해지고 수월해졌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교사들은 학교의 업무가 더 어려워지고 많아졌다고 생각한다. 업무 처리방식의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심적 부담과 더불어, 수기로 하던 일보다 전산작업을 통한 일이 더 복잡하고 불편해진 것이다.

컴퓨터로 일이 진행되면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워지긴 어려워졌는데, 일도 많아지고, 업무가 그렇게 더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러한 업무 때문에 학생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연구를 한다든가, 이런 시간이 거의 없어요. 저는 연구 교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수업이 일주일에 15시간으로 수업시간이 줄어들었는데도, 수업하러 들어가기 전에 책을 보고 들어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떨 때는 오히려 학생들보다 제가 늦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잠무'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런 일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다는 거죠. ... 교사는 수업만 하면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아주 그냥 저희가 수업을 안 하고 그냥 행정적인 일만 하는 행정교사 한두 명 뒤 가지고 모든 수업을 안 하고, 행정만 모두 전담해서 하는 거, 그런 방법도 한 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D중학교 부장교사)

학교의 업무 중 많은 것이 수업이나 학생에게 꼭 필요한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교사들은 이를 '잠무'라고 표현한다. 이런 학교의 업무가 오히려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 준비를 소홀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수업의 질을 떨어뜨리는 데 기여한다.

소인원 수의 학생들과 교사들로 구성된 C중학교는 가족적인 교사 분위기 등은 좋은 점으로 꼽았지만, 교사들의 인원 부족으로 인하여 한 교사가 여러 교과목을 담당하여 수업하고 있었다. 즉 학생 수와 교사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라도 여느 학교와 같이 주어진 업무량과 가르쳐야 할 과목과 시수는 같으므로, 교사들이 갖는 업무 부담감은 크다고 하였다. 결과적

으로 교사들은 교재연구에 투자하는 시간이 적어지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하였다.

라. ‘수업전문가’를 키우기 쉽지 않은 교원승진체계

교육행정 중에서도 수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사로서의 의욕과 사기를 진작시켜 줄 수 있는 교원정책이다. 그러나 현 교원정책은 그런 효과를 나타내기 어렵다.

하나 예를 들어 보면, 교육행정과 수업은 사실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인사승진문제라든가 나이 들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시스템 자체가. 나이 들면 의욕을 잃게 되고, 수업에 대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수업에 대해서 이거 말고 여러 가지가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것이…… 행정라인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교사로서 사명감을 갖게 만들어야 하는데 위축되게 만드는 행정라인, 교육청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A중학교 과학교사)

교사들은 나이가 들면서 소수만이 갈 수 있는 ‘승진 라인’에 들지 못하면, 나머지 다수는 평교사로 지내게 된다. 학생들의 수업을 전담하는 평교사에게는 별다른 유인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즉, 교사로의 사명감을 진작시켜 주는 교육행정이 정책적으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교사들은 나이가 들면서 수업 의욕을 잃게 되고, 단순한 하나의 ‘직업’으로서만 여기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교육정책이 어떠하냐’가 교사들이 수업을 열심히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교사로서의 소명의식과 의욕을 진작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교육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승진’을 위해 수업보다는 ‘업무’에 치중해야 하는 교육정책의 ‘실패’는 교사협의회에서도 논의되었다. 이러한 평가는 현재의 교육정책이 교사들을 ‘수업전문가’로 키우는 데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젊은 선생님들이 잘 한다고 했잖아요? 의욕적이고 배울 게 많은데, 결국 승진구조하고 맞물리는 것 같아요. 저도 젊었을 때는 승진에 대한 아무 미련도 없었거든요. 열심히 가르치면 되는 거니까. 하나라도 연구하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경력이 생기니까 다른 사람들이나 위에 관리자 분들이 ‘당신 경력이 이 정도 됐는데, 당신 장학사 준비하거나 연구부장 승진에 신경 써야 되지 않아?’, ‘당신 수업이 이런데 수업을 발전시켜 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은 없고, 장학사님을 만나 봐도 늘 그런 말씀을 하세요. ‘더 늦기 전에 빨리 해야 되지 않냐?’ 저는 장학사님이 빈말이라도 이렇게 말해 줬으면 좋겠어요. ‘현직에 있어서 부럽다, 나는 여기서 쓸데없는 일로 고생하고 있는데… 부럽다, 참 현장에서 끝까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말씀을……. (교사협의회, K교사)

현재의 교직구조에서는 수업을 잘 하는 사람이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잘 하는 사람이 승진하기 때문에, ‘승진 라인’에 서기 위해서는 수업에 열의를 보이기보다는 다른 행정업무에 치중해야 한다. 결국 교원정책이 수업을 잘 하도록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런 상황 아래에서 교사들이 정년 때까지 수업에 열의를 가지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면, 교육 정책 중 중요한 것은 ‘교원정책’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가중된 업무 부담, 더 적은 보살핌의 문제를 안고 있는 통합학교

지방에 있는 통합학교는 생각보다 문제점이 많으며 애초 기대했던 만큼의 실효성이 없다고 한다. 통합학교는 학생들 수가 너무 적어 교장 한 사람에 교감이 고등학교, 중학교 따로 근무하면서 학교를 운영하는 형태이다. 이런 경우 통합학교인 C중학교 교장은 두 학교급의 전혀 다른 성격의 학교를 운영해야 하므로 너무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고등학교는 밤에까지 야간자습 하니까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중학교는 거의 교감선생님께 하시라고 하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통합을 해서 이 학교 학생들이 얻는 것이 뭔가, 학생들이 얻는 것이 뭔가, 득보는 것이 뭐 있을까? 독립을 하면 독립해서 100% 이 학생들에게 모든 정성을 다 쏟아 줄 수 있는데, 내 미안할 때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교내 순찰을 한다 할 때도 고등학교도 해야지, 중학교도 해야지, 근데 고등학교는 인제 대학입시도 있고 하니까 고등학교 두 번 가고 중학교는 한 번 가고 하니까. (C중학교 교장)

현재 통합학교가 그리 많은 것은 아니지만, 교사들이 다른 학교급의 학생들을 함께 지도해야 한다는 문제와 높은 급의 학교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행정가의 처지 때문에 각각의 학교급에 적합한 운영을 하기 어렵고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 이로 인해 학생들 또한 더 적은 보살핌을 받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통합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학교장은 이 제도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교장 한 사람에 교감이 고등학교, 중학교 각각이고, 나머지는 다 따로 따로 있고. 교장이 한 명이라 고등학교와 중학교를 왔다 갔다 합니다. 공문도 다르게 오고 ... (중략) ... 두 학교가 지원, 교류가 전혀 없고 문화도 전혀 다릅니다. 물론 초등 통합은 더욱 그렇지요. 가장 어려운 점은 같은 과목 선생님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가르칠 수 없어요. ... (중략) ... 통합학교 교장모임이 있는데 거기서도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해요. 이런 자리를 통해서 통합학교 교장의 애환에 대한 힌트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C중학교 교장)

이와 같이, 제도적으로 지원되는 인적, 물적 자원의 확보와 교육정책의 방향은 교수·학습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친다.

IV. 교수·학습 상황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양한 교수·학습 지원 환경 변인은 다른 변인들과 함께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여기서는 교수·학습 지원 환경 변인이 수업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한 데서 드러난 교육적 문제점을 몇 가지 짚어보고, 이와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교육주체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학교 운영

기술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대개 학교의 운영 방향은 학교의 행정가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주변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학교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참여가 달라진다는 것은 주변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학교일수록 학교 운영에 대다수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다. 특히 학부모의 참여가 저조한 지역일수록 학교 운영은 학교 행정가 개인의 성향과 처지에 좌우되기 쉽다. 이런 식의 학교 운영은 그것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학교 운영에 교육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어려우며, 학교 운영의 방향이 지속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 운영의 방향 설정이 학생들을 위하여 교육적인가를 검토해야 한다. 경쟁을 통한 수월성 추구, 특정 부류를 위한 선택과 배제, 상급 행정기관에 의한 강제 등은 교육의 교육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이다. 학교 운영의 방향이 이러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유의해야 한다. 결국 학교교육의 주체들은 무엇이 교육적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대화하고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교육 주체들의 의견이 골고루 민주적으로 수렴된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학교교육의 주체에는 교사, 학부모, 학생의 세 집단이 있다. 이들의 의견을 고르게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인 토론의 통로와 합의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로 학생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는 학교는 드물다. 미성년자는 판단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학생 집단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풍조이다. 비록 학생 집단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교육에 대해 어떤 방향이 설정되는 것이 교육적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의 주체로서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런 토론의 통로를 통해 학생들은 배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다 많은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학교가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동반자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Borich, 2000; Lambert, 1991; Cochran & Dean, 1991). 따라서 학부모가 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과 활동

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Bronfenbrenner(1989)의 주장처럼, 학부모를 정보의 수신자(학부모 - 교사 회의, 가정통신문, 교실 소식지 등)로 참여시키는 것에서부터 다른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의사결정자(학교 및 교실 교육과정 자문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등)로 참여시키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수를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 하며, 더불어 학교 홈페이지나 가정통신문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학부모들의 의견을 고르게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2. 학교 행정업무의 분담과 축소

교사들이 수업에 열의를 가지고 교재연구와 수업 개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업 연구를 위한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행정업무의 분담, 축소가 선행되어야 한다. 학교의 행정업무 중에도 교사들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성격의 것이 있다. 이것은 교사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굳이 교사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행정업무들은 행정실에서 처리하도록 업무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교사들이 해야 하는 행정업무의 전체적 양이 줄어들고, 이것을 교사들이 분담한다면 업무 때문에 수업에 할애하지 못하는 시간도 어느 정도 확보될 것이다. 대개의 교사들은 많은 행정업무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하급 학교일수록 교사들이 담당하는 업무의 양이 많다. 교사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여 학교의 행정업무를 대폭 축소하고 행정실의 인력을 보충하거나, 아예 행정업무만을 전담하는 ‘행정교사 제도’의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업무분담과 축소가 이루어지면, 업무 때문에 수업에 소홀해진다는 업무가 수업을 침해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수업을 위한 시간 확보가 이루어져야 교사들의 ‘공동연구 체제’를 마련해 볼 수 있다.

3. ‘수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공동연구와 지원 체계 활성화

교사들이 수업에 열의를 가지고 교재연구와 수업 개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분위기를 쇄신할 필요가 있다. 일선 교사들에게 만연해 있는 ‘안주하는 분위기’를 ‘연구하는 분위기’로 바꾸어야 한다. 교사들 스스로 문제로 지적하는 ‘안주하는 분위기’가 고착된다면 교직사회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변화하는 시대와 학생 세대에 발맞추고 전문인이 되려면 끊임없이 계발하고 변화를 모색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안주하는 분위기’는 공동체주의보다 개인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교사들의 수업연구는 다른 교사들과 함께 할 때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서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교사들 사이에는 각자의 업무 수행이나 학생지도, 교과지도 등에 관한 노하우(know-how)도 개별적으로 터득하

고 그 책임도 개인이 지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이런 행태는 학교의 분위기를 ‘공동체주의’로 만들기보다는 더욱 더 개별적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

교사들의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동연구 체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들의 개인적 교과연구보다 공동연구를 장려하고, 그 공동연구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교사가 자신의 수업을 위해 하는 개인적 연구는 연구결과의 효과성을 검증받기도 어렵고, 연구결과의 성과를 다른 교사와 공유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개인적 연구보다는 교과별로 공동연구를 하는 체제가 필요하다.

현재에도 연구학교나 교과교육연구회의 활동 등 교사들의 공동연구를 독려하는 장치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연구 자체도 개인적 선호에 맡겨져 있어, 교과별로 심층적인 공동연구를 하는 분위기가 학교에 정착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그 성과를 다른 교사나 학교로 전파하여 그 성과를 공유하여 실천하는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 교사들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개선을 모색하는 실천적 연구 활동이 필요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있어야 한다. 연구 결과의 공유나 전파를 교사 개인에게 맡겨두는 것은 그 성과의 파급효과를 작게 만든다. 따라서 학교 간, 교사 간 정보 공유와 연구 활동의 성과를 널리 전파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체제가 필요하다. 예컨대, 교과별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그런 연구의 성과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교과연구실’과 ‘수업자료실’의 운영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교원연수제도를 통해 공동연구의 성과를 파급시키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4. 공동연구 성과와 연계되는 새로운 승진체계의 도입

교사들에게 수업과 업무가 대립적으로 구분되어 수업을 위해서는 업무를 잘 할 수 없고, 업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수업을 잘 할 수 없다는 ‘제로섬 게임(zero sum game)’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이다. 교사들의 승진체계가 수업보다는 다른 업무 능력을 평가하고, 그것으로 승진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교사들은 나이가 들면서 수업보다는 업무를 중시하는 태도로 바뀌게 된다. 예컨대, 실제 수업 이외의 대부분의 시간을 업무처리에 보내야 하고, 승진가산점을 얻기 위해 교육대학원에 진학하거나 현장연구대회에 논문을 내거나 연구학교로 지정받아 성과를 내야 한다. 수업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된 여러 제도들이 오히려 승진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전도된 것이다. 최근 학점제로 전환된 교원연수제도도 이와 같은 부작용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이 좋은 수업을 위한 연구와 준비를 많이 하고 고민하는 것이 오히려 승진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업무를 중시하는 현재의 승진체제는 좋은 수업을 위한 교사들의 공동연구를 활성화

시키지 못하고 교직에 진출한 지 몇 년만 지나면 ‘안주하는 분위기’에 젖어버리는 타성을 초래하게 된다. 교사들이 ‘안주하는 분위기’에 정착하게 되는 데는 수업에 열성적인 교사에게 보상이 없다는 점이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니 수업에 헌신하는 선배 교사를 존경하고 배우고자 하는 풍토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그 선배 교사의 수업 모델이 후배 교사들에게 모범으로 확산되거나 전파되는 풍토도 확립되어 있지 않다. 이런 학교의 상황에서 교사들을 ‘수업 전문가’로 양성할 수도 없고, 수업장학, 동료장학 등이 큰 효과를 발휘하기도 어렵다.

교사들의 ‘연구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수업을 연구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수업 전문가’를 우대하는 새로운 승진체계가 필요하다. 예컨대, ‘수석교사제’의 도입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 때문에 왜곡되고 표류하고 있긴 하지만, 그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 잘 정착될 수 있다면, 교사들의 연구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보상체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관리자로 승진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는 교사들로 하여금 열심히 학생들을 지도하여 전문성을 쌓고 그 전문성을 활용하여 동료 교사들을 지도할 수 있는 ‘교과 장학’ 활동을 할 수 있는 승진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현장에서의 연구와 실천의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다면 현장에서의 ‘연구하는 분위기’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혁규(2005)도 “이 제도가 관리적성보다 교육과 연구에 대한 적성을 가지고 현장지향적인 실천 활동을 수행하려고 하는 많은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과 자아실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5. 교육적 ‘효과’를 기할 수 있는 교육재정의 확보와 지원

통합학교 제도는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두 개의 서로 다른 학교급을 학교 행정가가 통합적으로 운영하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비록 도시가 아닌 시골 지역에 한정된 사례이긴 하지만, 다른 수준의 학교급이 통합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면 교육불평등의 문제가 초래된다. 학교 행정가가 높은 학교급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현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과 수준의 차이, 다른 연령으로 인한 문화적 통합의 어려움, 통합적 운영의 묘를 살리기 어려운 현실 등은 통합학교 제도가 교육의 ‘효과’보다는 경제적 ‘효율’에 더 치중해 있음을 나타낸다. 좀 더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보완적 조치가 필요하다. 교육시설 면에서나 학습효과 측면에서 좀 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더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가 갖추고 있는 시설과 교육기자재 등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다. 이를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면서도 더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충분한 교육재정의 확보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소규모의 교원연구실, 교과실 확충, 교사들의 공동연구 지원, 통합학교의 문제점

보완 등을 위해서도 교육재정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특히, 열악한 주변 환경을 가진 학교일 수록 학교 운영에 필요한 공적 지원이 많아야 한다. 학교와 교실의 교육환경이 사교육보다 더 낙후되어 있는 현 실정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 형성을 저해하는 한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따라서 필요한 교육기자재를 제대로 갖추고 학교와 교실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의 충분한 확보와 지원이 필요하다. 더불어 질 높은 교육환경은 질 높은 우수교사의 유치와 적절한 교사의 수 확보에서 조성될 수 있다. 이 또한 교육재정의 확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V. 나오며

실제 중학교 수업에 작용하는 여러 교수·학습 변인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수업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는 교수·학습 지원 환경 변인에 한정하여 그 영향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다양한 하위변인들이 중학교 교실 수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것들을 크게 학교 변인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 변인, 교육행정 변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앞에서의 기술 사례들을 살펴보면, 교수·학습 지원 환경 변인 중에서도 교육행정 변인이 가장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수·학습 지원 환경 변인은 수업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변인이라기보다는 교사나 학생, 혹은 수업환경적 측면에 영향을 미쳐 수업에 작용하는 간접적이고 중층적인 특성을 드러낸다. 하지만, 교사나 학생이 수업에 열의를 보이기 위해서는 그 여건을 조성해 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사나 학생 개인에게만 ‘좋은 수업’의 책임을 위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수업의 질적 측면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수·학습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교수·학습 지원 환경 변인이 미치는 영향에서 드러난 다양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 행정가나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주체의 교육적 의식의 각성이 요구되지만, 이를 이끌어 내고 양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의 실천에는 강제와 획일적 적용보다 자율성과 책임이 수반되도록 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문희 · 강문희(1999). 아동의 자아존중감 관련변인의 인과모형 분석. **한국아동학회지**, 20(4), 195-211.
- 김아영 외(공역)(2004). **교육 심리학(2판)**. 서울: 박학사.
- 김양분 외(2004). **학교 교육 수준 및 실태 분석 연구: 중학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04-3.
- 김왕근(2003).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개정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교실 수업 이해의 관점에서. **시민교육연구**, 35(2), 1-24.
- 김주훈 외(2002). **학교 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II) -좋은 수업 사례에 대한 질적 접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02-4-1.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1998). **교육학 대백과 사전**. 서울: 하우동설.
- 이기연(1992). **농촌고교교육의 사회적 기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이돈희 외(1999). **지식기반사회와 교육**. 교육부.
- 이성호(1999). **교수방법론**. 서울: 학지사
- 이혁규(2005). **교과 교육현상의 질적 연구: 사회교과를 중심으로**. 서울: 학지사.
- 전성연(2001). **교수·학습의 이론적 탐색**. 서울: 원미사.
- 조영달(2001). **한국 중등학교 교실수업의 이해**. 서울: 교육과학사.
- 차종천 · 유홍준 · 이정환(2004). **서울시 계층별 주거지역 분포의 역사적 변천**. 서울: 백산서당.
- 최승현 외(2005). **교수·학습 상황과 주요 변인 분석 연구: 중학교 2학년 교실수업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I 2005-4.
- Aloa, S. & Guthrie, J. T. (1998). Predicting Conceptual Understanding with Cognitive and Motivational Variables.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ERIC Document Reproduction NO. 423 284)
- Borich, G. (2000). *Effective teaching methods* (4th ed.).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 Bronfenbrenner, V. (1989). Ecological systems theory. In R. Vasta (ed.), *Annals of child development* (pp.187-251). Greenwich, CT: JAI Press.
- Cochran, M. & Dean, C. (1991). Home-School Relations and the Empowerment Process.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91(3), 261-269.
- Dills, C. & Romiszowski, A. (eds.) (1997). *Instructional development paradigms*. Englewood Cliffs, New Jersey: Educational Technology Publications.
- Frazee, N. & Rudnitski, R. (1995) *Integrated teaching methods*. New York: International Thomson

Publishing Inc.

Hoy, W. & Miskel, C. (2003).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6th ed.). New York: MacGraw-Hill.

Lambert, N. (1991). Partnerships of psychologists, educators, community-based agency personnel, and parents in school redesign. *Educational Psychologist*, 26, 185-198.

Lefrancois, G. R. (2000). *Psychology for Teaching*. CA: Wadsworth/Thomson Learning.

Merrill, M. D. (1994). *Instructional design theory*. New Jersey: Educational Technology Publications.

Spradley, J. (1980). *Participant observation*.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논문접수 : 2006년 4월 15일 / 수정본 접수 : 2006년 5월 15일 / 게재 승인 : 2006년 5월 24일

ABSTRACT

A Study on the Influences and Problems of “the Supportive and Environmental Variables of Teaching and Learning”

Eun-Joo Bae

(Lecturer, Hanyang University)

This study is about the influences of the supportive and environmental variables of teaching and learning on the instructions in the middle school. In this study, the actual teaching and learning situations in the second year of the middle schools are observed and people involved in such a context are interview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What influence on teaching and learning are a small decentralized “teachers’ room”, the principals’ directions of school management, parents’ participations for school management, utilizing community resources for instructions, promotion systems for teachers, employment system of laboratory assistance teacher and English native teachers, and teachers’ heavy work load. These variables influence positively or negatively on the instructions.

From these, many educational problems are discovered. Firstly, the directions of school management depend on school administrators. Secondly, teachers don’t have much time to prepare their instructions because of their heavy administrative load. Thirdly, a few teachers pay no attention to instructions because of teachers’ promotion system. Fourthly, consideration is given to “efficiencies” than “effects” in school integrating systems. So, in order to reform these problems, it is needed five reform methods. Firstly, schools should be managed through active participation of educational subjects. Secondly, it is needed to reduce teachers’ administrative load. Thirdly, teachers’ co-research systems for “instruction specialists” should be activated. Fourthly,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introduction of a new promotion system that can reflect teachers’ efforts in teaching and co-research. In addition, it is needed to increase funds for education.

Key Words : the supportive and environmental variables of teaching and learning, school participation, co-research system, new promotion system